

'박세웅 8이닝 1실점' 롯데, LG에 역전승...3연패 탈출

등록 2023.06.23 21:17:42



[서울=뉴스시스] 김진아 기자 = 3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 4회말 2사 롯데 박세웅이 LG 김현수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이닝을 마친 뒤 덕아웃으로 들어오면서 미소짓고 있다. 2023.05.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스시스]김주희 기자 = 롯데 자이언츠가 LG 트윈스 마무리 고우석을 무너뜨리고 3연패를 탈출했다.

롯데는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리그 LG와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3연패를 벗어난 롯데는 4위(32승31패)를 유지했다. 2위 LG(41승2무26패)는 3연승이 무산됐다.

양팀 선발투수들의 호투 속에 접전이 펼쳐졌다.

롯데 박세웅은 8이닝 3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냈다.

LG 켈리도 8이닝 7피안타 7탈삼진 1실점 비자책점을 기록했다.

박세웅과 켈리 모두 올 시즌 8이닝을 책임진 건 처음이다.

선발 투수들의 위력투에 타선이 진땀을 뺐다.

롯데는 7회까지 안타 5개를 뽑아냈지만 연속 안타를 날리지 못하며 번번이 빈손으로 물러났다.

박세웅에 공공 묶여 6회까지 단 1안타만 때려낸 LG는 7회말 찬스를 점수로 연결했다.

선두 홍창기의 좌전 안타와 김현수의 중전 안타로 1사 1, 3루를 일궜다. 오스틴 딘이 유격수 땅볼에 3루 주자 홍창기가 홈으로 뛰어들어 선제점을 올렸다. 병살타가 될 수 있는 타구였지만 오스틴이 전력 질주해 1루를 먼저 밟았다.

리드를 빼앗긴 롯데는 8회초 곧바로 반격했다.

선두 유강남이 좌전 안타를 친 뒤, 김민석이 희생번트를 댔다. 이때 2루를 돌던 대주자 황성빈이 2루 커버를 들어와있던 유격수 오지환과 충돌, 주루방해로 3루까지 안착했다.

1사 3루를 만든 롯데는 고승민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동점에 성공했다.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는 마무리 투수들의 등장과 함께 갈렸다.

1-1로 맞선 9회초 롯데 선두타자 전준우가 LG 고우석에게 볼넷을 얻어내고, 안치홍이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1사 1, 3루에서 박승욱이 좌선상에 떨어지는 적시 2루타를 날려 경기를 뒤집었다. 이날의 결승타다.

롯데 마무리 김원중은 2-1로 앞선 9회말 등판,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켜냈다.

박세웅은 시즌 4승(2패)째를 챙기고, 김원중은 시즌 13번째 세이브를 수확했다.

구원에 실패한 고우석이 패전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